

광주교육감 ‘무상교육·실력광주’ 공약 봇물

후보들, 고교 무상급식·교통비 지원·교복 제공 교육정보원 확대 개편 등 학습능력 향상대책도

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교육감 예비출마자들이 무상교육 정책과 실력 광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교육’ 공약은 예산 확보 여부를 떠나 학부모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고, ‘실력광주 추락 논란’은 유독 교육열정이 높은 광주 학부모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교육감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장휘국 예비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4년전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해 학부모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장 예비후보는 이번엔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 학부

모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선대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양형일 예비후보는 통학비용과 방과후학교 비용을 제공하고, 무상 유치원까지 도입해 의무교육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윤봉근 예비후보는 학부모 부담이 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도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왕복 전 조선이공대 총장은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교한다는 점에 착안해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아침

밥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무상교복 제공을 약속하고, 농촌형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인 김영수 예비후보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고영을 구구려대 이사장은 ‘유치원 의무교육’ 법제화를 내걸었다.

장 교육감 재임시절 학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비후보들은 ‘실력 광주 재건’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장 교육감을 겨냥한 공약이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교육정보원을 진척진로교육정보원으로 확대개편해 실력이 뒤쳐진 광주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학생들의 통합적 학습능력도 신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윤봉근 예비후보는 에듀테크리닉센

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돕고, 김왕복 예비후보는 맞춤형 수업과 담임 중심의 학급운영으로 전면일괄적인 현재의 교과위주 학습현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예비후보는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과목 사이트를 운영하고 교사 수업을 공개하는 한편 ‘베스트 티처제’ 운영으로 교사간 경쟁을 유도해 수업능력을 높인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희곤 예비후보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협력 수업을 도입하고, 고영을 예비후보는 학력은 학교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수준별 교과교실제·자율학습 시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공격적 장휘국 예비후보는 “실력이 뒤쳐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순태 칼럼

5월은 아직 슬프다. 온 세상이 연둣빛으로 물든 가정의 달에, 물에 잠긴 세월호와 5·18의 아픈 그림자가 눈물로 겹친다. 귀에는 아직도 34년 전 광주를 뒤흔들었던 총소리와 함께, 선실에 갇혀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바다를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고 싶다.”고 통곡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밝힌다.

문득 나도 손자들을 안고 싶어 머는 리와 딸에게 문자를 찍었다. “새끼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꼭꼭 안아줘라. 지금 옆에 있는 새끼들이 얼마나 소중한냐.” 막상 문자를 찍고 나니, 바다를 향해 “안고 싶다”고 울부짖은 한 어머니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

세월호 참사후로 가정에 변화가 생겼다. 연휴기간 고속도로가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었다. 아버지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아졌는가 하면, 주말이면 가족나들이가 잦아지고 가족 간에 휴

은 천국이다. 유태인 격언에도 “가족이 무너지면 신전도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 가족은 행복의 최대 단위이다.

이처럼 소중한 내 가족을 누가 지켜 줄 것인가. 대통령이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가 지켜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 집단 불안증에 빠진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번 참사에서 살아나 가족 품에 안긴 한 여학생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비록 두 끼만 먹더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고 했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우리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른다. 압축성장으로 1인당 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 OECD회원국이 된 것을, 우리도 이제는 살만하다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모른다.

자만하고 있는 동안 행복의 지렛대인 안전판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정부에서 그동안 국가안보에만 정신을 쓰는 사이 사회안전망이 총체적으로

세월호, 가족, 성년 민심

대폰을 통해 사랑한다는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다.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이 대부분 가난한 맞벌이 부부들이라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된다는 탄식이 참음이 걸린 듯일까.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애도분위기 감정을 공유하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현대인의 삶이 개별화, 캡슐화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사랑·용서·믿음·화해·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말이 있다. 가족은 마치 물이나 공기과 같아서 같이 있을 때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떠나면 그 빈자리가 더욱 커지고 나머지 가족의 삶은 늘 불안정하여 결코 행복하지 않다.

가족은 사랑충전소, 행복충전소와 같다.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씻고,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하고, 짜증내고, 위로받고, 잠자고,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다.

괴테는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가장 견고한 공동체이며 작

마비된 것은 아닐까. 세월호 선장은 탈출하기에 급급, 총리는 어물어물,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까운 꿈나무들이 어둠과 차가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던가.

4월16일의 충격은 슬픔과 분노로 변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물속에 잠긴 희망과 기다림은 병이 되고 말았다. 눈물 속에 숨겨지는 이 성년 민심을 어찌할 것인가. 분항소를 찾는 애도 물결이 무능정부를 빗하는 국민들의 목시적 시위일 수도 있다.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울어 주고 같이 기다려주겠다”며 전국에서 진도로 물러온 수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미개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도 고통에 동참하는 ‘일등국민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그래도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오늘의 슬픔을 끝까지 기억하는 일이다. 4월16일을 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자,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자. 그리고 힘껏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자. 오늘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를 마지막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소설가>

아프간 산사태 2500명 매몰 구조 중단 ‘집단 무덤’ 선언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바다크산주(州)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최대 2500명의 주민이 매몰된 가운데 정부가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피해 지역을 ‘집단무덤’으로 선언했다.

산사태 현장을 찾은 사 월리울라 아디브 주지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집들이 수 m 아래 파묻혀 더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 지역을 집단무덤으로 만들겠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일 발생한 산사태로 최대 2500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300여명에 이르며, 추가로 수백 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아프가니스탄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삼귀의례하는 차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서울 중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과 함께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생명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죄송”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역대 대통령으로 첫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할 수 있겠는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 “물속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갈

이 사과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침몰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이 사고현장인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가족대책본부 천막을 방문, 가족 50여명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한 가족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비공개로 30여분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하든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실종자 분들의 생명을 기원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창사 62주년

해남군청 직영 땅끝해남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해남미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 보세요!!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해남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더해 가장 귀한 상품만을 엄선 했습니다.

www.해남미소.한국
www.hnmiso.com

해남미소 061-537-1472(일사천리)
080-859-1100(무료)